

“포교·소임 이력 안거에 포함”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주장

“포교·소임기피는 안거수 산정 불합리한 탓”... 우려 의견도

3월 13일 열린 2006년 제1차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지관)에서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현행 안거수 산정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쳐 종단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해인사 주지 현음 스님이 “본사급 사찰에서도 7직 소임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 겪고 있어, 총무원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데 따른 청화 스님의 답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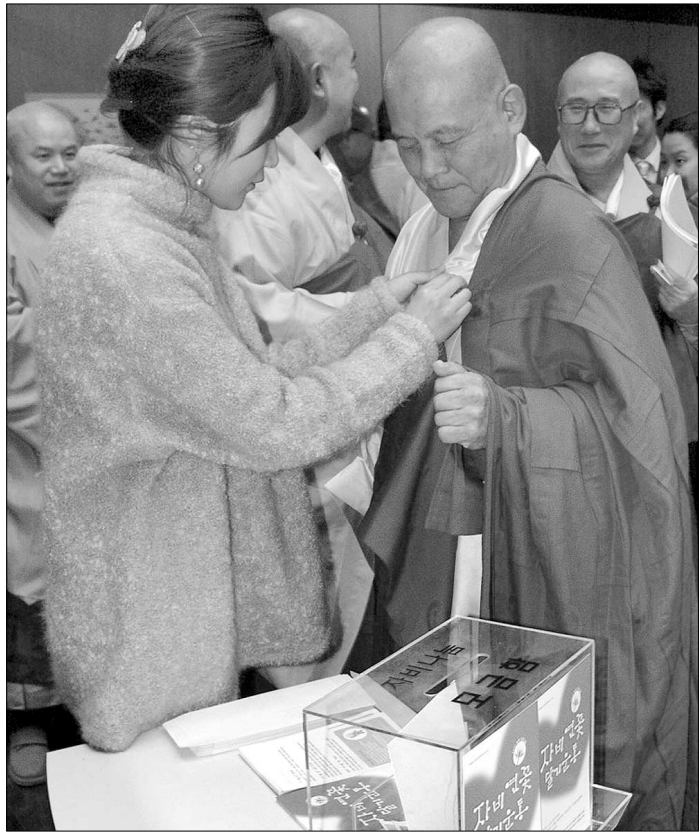
청화 스님은 “스님들이 포교에 나서거나 소임 살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현행 안거수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사찰에서 포교와 소임을 살거나 교육기관 교직자도 별도의 안거 이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주장은 선원에 방부를 들이지 않는 스님들에 대해서도 방함과 유사한 수준의 수행이력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본사주지회의를 통해 공식 거론된 만큼 총무원 집행부 차원의 종법 개정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선원에서 참수 수행하는 스님 뿐 아니라 포교, 복지, 교육, 기도, 교학연구, 종무, 작법의 식, 문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님들도 수행이력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요구는 이미 지난해부터 승랍 10년차 스님들의 3급승가교시 응시자격에 선원의 안거이력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종단 주원에서 자언스럽게 제기돼 왔다. 예비승인 사미니를 포함한 조계종 스님은 대략 1만여 명이지만, 15에 달하는 2000여명의 스님이 매년 6개월(하·동안) 거둔 안거에만 매달리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수행과 포교



3월13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마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자비의 연꽃’ 배지를 달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재난구호와 소외계층지원기금 마련을 위해 이날부터 ‘자비의 연꽃’ 달기운동을 시작했다. 사진=조용수 기자

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종단스님들의 고민이 담겨있다. 수행과 포교라는 종단의 양 날개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총무국장 정범 스님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종단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에 대한 이력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장 범상 스님도 “그동안 각자의 근기에 맞는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스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수행이

력 프로그램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각 본사마다 재직스님들에 대한 ‘평가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원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간혹선 중심의 조계종 수행풍토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했다. 조용수 기자

“멸빈자 사면에 분노”

도법·수경 스님 성명

조계종이 98년 종단사태로 인한 멸빈자들을 구제하는데 대해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과 실상사 도법 스님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법 스님과 수경 스님은 3월 15일 ‘총무원, 중앙총회, 호계원, 법규위원회 스님과 사부대중들께 제안드린다’ 글을 통해 “참다운 종단 화합의 길은 승려대회 정신과 결의를 실행하고 오로지 종도의 뜻을 존중하며 중현종법을 지키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두 스님은 “종단의 합법적 정통성의 근간인 중현종법질서가 무시됨으로 인해 끝없는 불화의 불길속으로 달려가는 종단 현실에 분노와 두려움을 느낀다”며 “현 종단 집행부, 중앙총회, 호계원, 법규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과오를 바로잡는 실질적인 특별 대책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조용수 기자

영상포교 진단

28일 포교정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은 3월 28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 영상포교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2006년 제1차 포교정책연찬회를 개최한다.

박준영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연찬회에서 보리방송모니터회 김재일 이사장과 우봉규 극작가가 ‘방송에 비친 불교와 방송을 통한 포교 활성화 방안’과 ‘한국영화 속의 불교, 그 미래와 방향 사이’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미디어 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 및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포교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역사적 사실·기록 의한 저술”

‘태고종사’ 간행위원회 성명 발표

태고종 종단사간행위원회(위원장 수열, 이하 간행위는) 3월 16일 ‘태고종사’ 발간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료를 갖춰 정중히 질의하면 적절한 응답을 할 것이며, 태고종단과 종단의 교수를 ‘아전인수격이니 역사왜곡이나’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을 밝혔다. 간행위는 “<태고종사>는 태고종

의 조사스님들이 겪고 당한 일들을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 의거해 있는 그대로 저술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태고종단과 종단의 조사스님들을 왜곡 폄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 “<태고종사>를 대표 집필한 노교수를 ‘아전인수격이니 역사왜곡이나’ 운운하며 비난하는 것은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조선왕조실록 반환 요청서 도쿄대에 전달

15일 첫 협상, “4월17일까지 입장 밝히겠다”

조선왕조실록 반환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실무자들이 처음으로 만났다.

조선왕조실록학술회의(공동의장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본선사 주지 월안스님, 이하 환수위)와 도쿄대(동경대)측 실무자는 3월 15일 도쿄대 제1소회의실에서 협상을 갖고 조선왕조실록 반환에 관련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환수위는 이날 협상에서 도쿄대에 정식으로 반환요청서를 전달하고 조선왕조실록을 이른 시일 안에 되돌려 줄 것을 거듭 요청했고 이에 대해 도쿄대는 환수위가 전달한 요청서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4월 17일까지 의사를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그동안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소잔본(尙殘本)이 당초 알려진 46책이 아니라 47책인 것이 밝혀졌다.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정확하게 몇 책이냐는 환수위 측 질문에 도쿄대 도서관 사서와 사무부장은 “소잔본 46책과 대어한 1책을 포함 총 47책이며 오대산 사고본이 어떤 경우로 일본에 왔는지 자세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는 환수위 간사 해

경도한 뒤 4월 17일까지 의사를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상에서는 그동안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소잔본(尙殘本)이 당초 알려진 46책이 아니라 47책인 것이 밝혀졌다.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 정확하게 몇 책이냐는 환수위 측 질문에 도쿄대 도서관 사서와 사무부장은 “소잔본 46책과 대어한 1책을 포함 총 47책이며 오대산 사고본이 어떤 경우로 일본에 왔는지 자세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협상에는 환수위 간사 해

문, 범상 스님과 노회찬 환수위원(민노당 국회의원), 문만기 실행위원장, 김승식, 이준희 변호사가 참석했으며 도쿄대측에서는 사이고 도쿄대 도서관장이 갑작스런 모친상(14일)으로 불참했지만 사사가와 도서관 사무부장과 이시가와 기획실의 계장 등 4명이 참석했다.

환수위 간사 해문 스님은 “지난 8일 도쿄대에 공문을 보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되돌려 줄 것을 촉구했다”며 “일본측이 4월 17일까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기다리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포교성과 인사에 적극 반영”

조계종 포교원, 총무원에 권고기로

조계종 포교원이 신도등록 및 신도교육 등 포교성과를 주지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총무원에 권고기로 했다.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기 신도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그간 포교원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신도재직자할 갖기 운동(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의 진행경과를 밝혔다.

이에 대해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현재 40여만 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재직사할 갖기 100만

명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성타 스님은 “신도등록 및 신도교육 등 포교성과를 주지인사에 반영하도록 총무원에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동국대 교수 범상 스님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총무원으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내달 7일·8일

동화·은해사 산중총회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광)는 5월 주지임기만료를 앞둔 교구본사 동화사와 은해사의 산중총회 일정을 4월 7일, 8일로 각각 확정했다. 동화사는 7일 오후 1~4시 불서루에서, 은해사는 8일 같은 시간 은해사승가대학원 강당에서 각각 산중총회를 연다.

선관위는 또 3월 16일에는 제154차 회의를 열고 “최근 결성된 ‘제9 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추대위원회’의 활동이 이후 스님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추대위 명칭을 바꿀 것을 교구선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4월 4일 회의를 열고 동화사 은해사 산중총회 선거인단 명부를 확정한다.

조용수 기자

정념·도완, 범여·보원 스님

동국대 이사후보로 추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 현해 스님 후임에 정념(평창 월정사 주지) 도완(중앙총회의원) 스님이, 지관 스님 후임에 범여(교창 선운사 주지) 보원(중앙총회의원) 스님이 만장일치로 추천됐다. 현해·지관 스님의 임기는 올 5월 17일까지다.

조계종 총림학교관리위원회는 3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총관위는 또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지하 스님 후임에 지하·월우 스님, 종하 스님 후임에 종하·송강 스님, 범상 스님 후임에 범상·천산 스님, 박완일씨 후임에 박완일 현원 씨를 각각 추천했다. 남동우 기자

영배스님 이사승인확정

교육부 항소 포기 따라

영배 스님의 동국대 이사 승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3월 13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 학교법인측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3월 7일 동국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배 스님 ‘이사 취임 이행 실행 청구’에 대해 이사 취임 승인 결정을 내렸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ho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루 www.mahamall.co.kr
 FAX (02)737-0696 온라인서점 예시어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기2550(2006)년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공모

대한불교조계종은 우리의 전통 민족문화인 한국불교미술을 계승해 나갈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육성하고, 불교미술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미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주최기관

- 가.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나. 주관 :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 다. 후원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공예문화진흥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범보신문사, 불교TV, BBS 불교방송

2. 공모부문 및 규격

부문	규격	세부사항	비고
회화	세로227cm×가로181cm(150호) 이내	1. 기로 최대 200cm까지 가능 2. 액자의 경우 외경 size 크기 임	시경(현상도있는), 판화가능
조각	높이180cm×폭180cm×두께120cm이내	실내전시 가능한 작품	
공예	높이180cm×폭120cm×두께120cm이내	병풍의 경우 펼쳤을 때 외경 size 크기임	서각 가능

3.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인 자(2006년 7월 14일 현재)

4. 응모원서배부 및 작품접수

- 가. 원서배부기간 : 2006년 6월 20일(화) ~ 7월 14일(금)
- 나. 작품접수기간 : 2006년 7월 14일(금) ~ 7월 18일(화) 5일간
- 다. 응 모 비 : 1점당 50,000원 (1인 2점까지 응모가능)
- 라. 원 서 배 부 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본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다운로드
- 마. 작품접수처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

5. 심사발표

2006년 7월 26일(수), 본 종 홈페이지 및 불교신문 공고, 개별통보

6. 시상내역

부 문	작품구분	상액 및 상금	비 고	정부가관별상
대 상	1명	상액, 1,200만원	작품구입비포함	문화관광부장관상 1명
최우수상	2명	상액, 300만원		문화재청장상 1명
우 수 상	3명	상액, 100만원		
장 려 상	6명	상액, 50만원		
특 선	00명	상액		
입 선	00명	상액		

7. 시상식 및 작품전시

- 가. 시상식 : 2006년 8월 30일(수)
- 나. 전시일정 : 2006년 8월 30일(수) ~ 9월 5일(화) 7일간
- 다. 장 소 :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대 1가나아트갤러리 2·3층

8. 작품반출

- 가. 낙선작품 반출 : 2006년 7월 26일(수) ~ 28일(금) 3일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 나. 입상작품 반출 : 2006년 9월 5일(화) 12시 ~ 15시 인사동 인사아트센터 전시관 2·3층
- ※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을 시 출품작에 대한 분실·파손 및 기타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9. 공모비정

- 가. 응모작품은 한국불교미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지평을 여는 창의성 풍부한 작품이어야 함
- 나. 국내·외 미발표작만 출품 가능함.
- 다. 공동작품일지라도 응모자는 1인으로 함.
- 라. 작품제출 시 제시된 규격을 초과한 작품은 일체 접수를 하지 않음.
- 마. 액자의 경우 유리를 끼우지 않은 작품이어야 함.

10. 문의처

제2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사무국 담당 : 김영환
 TEL : (02)2011-1772 / FAX (02)722-2606 / kimywan@buddhism.or.kr

